



서울시대부중·고

변인재(10회)

나의 국가대표시절

최빈국의 설움-돈 없어
도쿄 아시안게임 출전 좌절
13면

1~6회 '어르신들께

기프트카드 발송

"잊지 않아줘 고마워요"
4면

바다낚시 배틀

채양식(22회) vs 김영태(24회)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18-19면

이병항(8회)·윤정희(17회)

우리는 사돈

"시집살이 어림 없어"
형제, 자매 모두 부교
10-11면

오영균(2회)

나의 삶,

나의 이야기

미 외교관이 유학 주선
한인 CPA협 창립 '보람'
14-15면



● 표지 사진 ●

변인재(오른쪽) 동문과 양승숙 동문



Young Ocean

from Salmon *to* Fish Roe Products

Young Ocean has been striving to offer its clients many variety of high quality seafood from Alaska.

Please check out our full line of fresh products and make your order online at www.youngocean.com

20233 80th Ave., S.
Kent, WA 98032
Tel. (253) 395-1900
info@youngocean.com



채자원(26회) · 채양식(22회)



서울사대부중·고 미주동창회보

[제 5 호]

2021년 3월 1일 VOL. 5

CONTENTS

- 04 '어르신들'께 선물권 우송
- 05 오매불망 학창시절 소한 '봄물'
- 06 건강, 이렇게 지킨다 류문기(1회), 유석환(6회)
- 07 '시카고 약탈 피해' 명정염(31회)
'코로나 귀국' 신다정(62회)
- 08 퇴임 이은숙 모교 교장 인터뷰
- 09 동창회 소식
- 10 우린 동문 사돈 이병항(8회), 윤정희(17회)
- 12 창단 8주년 맞는 선농합창단 박영훈(21회)
- 13 '한국 신기록' 대표선수시절이 변인재(10회)
- 14 나의 삶, 나의 이야기 오영균(02회)
- 16 팬데믹이 준 기회 하소주(18회)
- 17 '듀나미스 듀오' 라이브 피아노 공연
- 18 낚시 배틀 채양식(22회) vs 김영태(24회)
- 20 '양로원' 동문모임, '지금은 익숙해요'... 송명숙(31회)
- 21 LA 16회 동기생이 무려 40여 명 무슨 사연이?
- 22 '어게인 2019' 캐나다 공감 크루즈
- 24 북리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안동현(15회)
- 25 노원일(1회) 선배 타계
- 26 선농 에세이 야구와 부활절
- 27 연회비 납부 캠페인

발행인 김민주(21회) · 박흥주(22회)

편집인 박용필(18회)

편집위원 조남중(34회) · 구송영(47회)

13347 Fern Pine Circle, Cerritos, CA 90703
(213) 268-2301 | snubugo2018@gmail.com
<http://socal.snubugo.net>

동문자녀 대상 장학사업 적극 펼칠 터 'I Dream, I Can' 내년 추진



심재호 (27회)
남가주 총동창회
장학위원장

지난해 남가주총동창회는 정관을 개정해 동창회와 장학회를 통합하고 동창회 산하에 장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위원장을 맡기로 선임되었으나 예기치 못한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동창회 활동도 정지되다시피 하고 장학위원회의 출범도 지연되는 상황을 맞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의 확산이 조금씩 안정되어가고 있어 다시 정상을 회복할 준비를 해야 할 때로 판단됩니다. 마침 여러 동문님들의 노력으로 회보가 발간되다니 반가운 마음으로 앞으로의 진행방안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선 장학위원회를 구성 중입니다. 위원장 포함 5명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후배 동문들로 선임하여 세대 교체를 기하려 합니다.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을 고문으로 모시어 선후배 간의 협조도 꾀할 것입니다. 조직이 갖추어지면 전 장학회의 정관을 기초로 운영세칙을 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지금도 팬데믹 상태는 여전하나 굳이 대면관계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익숙해진 비대면으로 장학사업은 얼마든지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우편, 이메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동문님들과 비대면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기금모금, 장학금 수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모교생 초청 프로젝트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내년 부터는 적극적으로 "I Deam, I Can"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안과 계획이 결정되면 이를 모든 동문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금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문제로 고통을 받는 동문들이 많으시리라 짐작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다행히 영향을 덜 받거나 받지않는 분들도 계실 것 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 동문들끼리라도 서로 돕고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 시면 보다 아름답고 돈독한 동문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손)자녀의 교육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동문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후배는 없도록 장학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잔은 비워야 다시 새롭게 채울 수 있습니다. 동문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고마울 따름입니다. 잊지 않아주세요”

LA 1~6회 ‘어르신들’께 기프트카드 우송



▲ 지난 2018년 마지막 열린 한줄기회 모임. 1~8회 원로들로 구성됐으나 연로한 동문이 많아 자발적으로 해체했다.

“귀한 선물이네요. 저희들을 잊지 않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가주총동창회(회장 박흥주, 22회)는 지난 12월 중순 1회부터 6회까지의 선배 동문들에게 일제히 기프트카드를 발송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송년모임을 갖지 못한 대신 원로 동문들에게 위로의 선물권을 증정한 것.

기프트카드(코스트코 발급)는 모두 20분들에게 보냈다. 선물권을 받은 선배 동문들은 동창회 발족 이후 처음있는 ‘감동’이라며 한결같이 고마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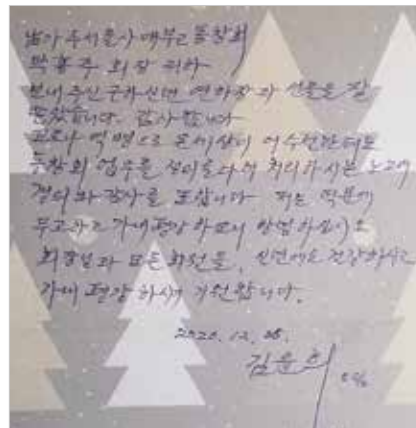
팜스프링스 인근의 소도시 배닝에 살고 있는 김완규(5회) 동문은 “너무 반가웠다. 지금도 흥분된다”며 감사를 전했다. 김 동문은 남가주 총동창회 초대 회장. 1969년 몇몇 동문이 모여 만든 모임이 이제는 규모의 성장은 물론 이처럼 질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뤘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기프트카드 보내기 프로젝트는 이번 회장단의 큰 업적이라고 치켜세운 김 동문은 이 사실을 동창회보에 크게 실을 것을 주문했다. 김 동문은 동창회 뿐만 아니라 한줄기회(1~8회 원로 모임) 발족의 산과 역할을 했다. 동창회의 산증인인 분이다.

김윤희(2회) 동문은 직접 감사카드를 보내 회장단을 격려했다. “코로나 역병으로 온세상이 뒤숭숭한데도 선물까지 챙겨주는 등 그 세심한 배려에 진정 고마움을 느낀다”고 감격해했다.

이외도 방옥환(3회), 백성용, 심정선(4회) 동문도 “정말 멋진 성탄절과 새해 선물이었다”며 감사를 전해왔다.

당초 동창회 주소록에 올라있는 1~6회 동문은 총 68분이다. 이 가운데 유명을 달리하셨거나 전화 연결이 안 되는 등 ‘유고’ 상황이 48분이나 됐다.



▲ 김윤희(2회) 동문이 보낸 감사카드

기프트카드는 현금이나 다름없어 일단 대상 동문들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주소를 확인해야 했다. 전화연결이 안 되면 메시지를 남겨놓거나 문자를 보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주소가 확인된 원로동문들이 20분으로 추려진 것이다.

주소확인작업과정에서 이미 타계하신 분들이 있어 회보 취재진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1회 노원일 선배를 비롯해 김영애(5회) 동문이 세상을 떠나신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악화

로 인해 대면접촉이 없다보니 별세 소식이 처음 밝혀진 것이다.

투병 중인 동문들의 소식도 뒤늦게 알려졌다. 김완규 동문은 같은 단지에 살고 있는 박상규(6회) 동문이 파킨슨병으로 어렵게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알려왔다. 윤정현 이기준(6회) 동문도 최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연결이 안된 동문은 김정자, 박시원, 윤병석, 이정화, 임영수(이상 4회), 송준화, 이기동, 정희자, 주명학, 지석근, 최승욱, 최영석, 곽진모(이상 5회), 정영모, 정인철, 현재진(6회) 등이다.

박흥주 동창회장은 “지난해 초 매달 최소 한 번은 선배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근황을 살피는 등 계획을 세웠으나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 재앙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번 주소 확인작업과정에서 일부 선배님들의 딱한 처지에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적지 않았다”고 말한 박 회장은 “앞으로 원로동문들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동창회 차원에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비록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령의 선배 동문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엔 절실히 느꼈다고 덧붙였다.

기프트카드 발송 명단은 다음과 같다.

- 1회: 노원일, 류문기
- 2회: 김윤희, 김윤희, 오영균, 이창수
- 3회: 방옥환, 윤응준, 정승영
- 4회: 고영명, 백성용, 심정선, 정찬진
- 5회: 이완규
- 6회: 권영덕, 김원진, 김정렬, 박상규, 윤정현, 이기준

오매불망 학창시절 소환 ‘봇물’

빛바랜 흑백사진, 동영상도 올려



▲ 태상근 수학생과 함께.
한영한(왼쪽) 동문의 졸업기념 사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촉발된 ‘집콕’이 장기화되면서 각가지 사연이 단톡방에 올라와 흥미를 끌고 있다. 비대면이 일상이 돼 만남 자체가 어려워진 탓인지 옛 추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영한(16회, 시애틀)동문은 1964년 졸업식 때 태상근 당시 수학생과 함께 찍은 것이라며 빛 바랜 흑백사진 한 장을 띄웠다. 옛 친구로부터 온라인 전송을 받았다는 설명과 함께 다른 동문들도 사진을 올려 추억을 공유하자고 권했다. 이 바람에 한 동문은 요즘 보기드문 ‘훈남’이라는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구송영(47회, 채타누가) 동문은 컬러 사진을 올려 한 동문과 비교가 됐다. 흑백세대와 컬러세대와의 차이라고 할까. 구 동문은 부고 재학시절 예절교육을 받는 장면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여학생들의 한복을 차려입은 모습에 ‘참 굵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동영상을 올린 동문도 있다. 캐나다 토론토의 이양배(22회) 회장은 수년 전 동문회 모임을 편집한 동영상을 올리며 이 비디오를 모든 분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했다. 동영상은 김은정(23회) 동문이 제작한 것으로 코로나 이전의 분위기를 잘

연출해냈다.

단톡방은 ‘동문 찾아주기’에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다.

고혜자(14회, 사우스 캐롤라이나) 동문은 지인인 김용현 교수가 옛 친구 김길성(10회) 동문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동기인 변인재(뉴햄프셔) 동문이 전화번호는 물론 이메일 주소까지 확인해줘 두 분이



▲ 캐나다 토론토 동문들이 제작한 동영상

‘노치원’ 신조어 유행시킨 김경자(14회) 동문 구송영(47회) 동문의 ‘예절교육’ 사진에 탄성

해후할 수 있게 도와준 것.

윤여환(14회) 동문 찾기 운동도 벌어졌다. 청구인은 본국의 이은숙 부고 교장. ‘윤여순(10회) 장학금’ 관계로 문의할 게 있는데 연락할 길이 없다며 도움을 청했다. 이 교장은 윤여순 동문이 갑자기 유명을 달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왔다.

두 윤 동문은 남매사이. 동기들의 도움으로 소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버지니아텍 석좌교수로 있는 윤 동문은 광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



▲ 구송영 동문이 올린 부고 재학시절 예절교육 모습

는 학자다.

김경자(13회, LA) 동문은 ‘노치원’이란 조어(coined word)를 만들어낸 장본인. 맘대로 여행다녔던 그 시절이 그리다며 동기생들과 찍었던 사진을 올렸다. 지난 2014년 플로리다와 바하마 크루즈를 다녀왔다는 김 동문은 ‘유치원’ 시절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은 80대에 가까워마치 ‘노치원’에 들어온 기분이라며 감회에 젖었다.

‘독서광’으로 뜬 동문도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뉴욕의 오시국(22회) 회장. 세달에 한번 10~15권씩 주문해 읽는다는 것이다. 동부 쪽에선 반디서점(718-353-4411)에 전화하면 7~10일 후 책을 받아 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오 동문은 이민진의 ‘파친코’가 애플TV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소식도 알렸다.

지난해 11월 ‘파친코’를 원문으로 읽었다는 임혜옥(17회, 애틀랜타) 동문은 어려운 영어표현이 없다며 동문들에게도 일독을 권했다.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재일교포 4대에 걸친 이야기를 다뤘다. 마지막에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대목도 나온다. 한편 매달 첫 번째 수요일에는 미주지역 동문들이 줌을 통해 화상모임을 갖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423) 991-9610 (구송영)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탁구’ 류문기(1회) · ‘스키’ 유석환(6회)



▲ 류 문 기



▲ 유 석 환

VS

“건강 비결요? 웬만해서 늙지 않아요.”

류문기(1회) 선배는 동창회의 최고참 어른이시다. 구순을 넘긴 연세에도 시력과 청력 모두 정상이다. 대화에도 전혀 불편이 없다. 무엇보다 허리가 꼳꼳하다. 처음 보는 분들도 류 선배의 정정함에 놀란다.

비결은 뭘까. 건강에 관한 한 ‘루틴(routine)’을 꼭 지킨다. 아침 일찍 집 앞에 있는 골프장을 찾는다. 부부가 무공해 산소를 마시며 걷는다. 1월부터 18월까지 걷다 보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난다.

오후는 탁구를 즐기신다. 리빙룸에 소파 등 가구를 치우고 대신 탁구대를 들여왔다. 부상방지 패드를 곳곳에 부착하는 등 안전에도 만전을 기한다.

류 선배는 기교파다. 10대부터 탁구를 쳐 테크닉과 폼은 나무랄 데 없다. 아무래도 파워가 달리다 보니 요즘은 기술로 상대를 제압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외부인’을 초청해 탁구를 즐겼으나 요즘은 상황이 어렵게 됐다. 특히 집 인근에 살고 있는 큰 아드님의 ‘감시’가 삼엄하다. ‘외부인 절대 출입금지령’을 내려 부부가 꼼짝없이 집에 갇혀 살게 된 것.

류 선배의 바람은 딱 한가지. 빨리 코로나 백신 접종을 끝내 후배들과 탁구를 즐기며 세상돌아가는 얘기를 나누는 것이다.

“3월 중순쯤이면 되겠지? 꼭 집에 들려요. 오랜만에 얼굴 보며 탁구 한 판 치시다.”

팔십 중반을 넘긴 나이에 스키를?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지만 결코 픽션이 아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유석환(6회) 동문. 동기생으로부터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설마~ 뺨이겠지’하며 전화를 해 봤다. 몇차례 걸었는데도 무응답, 그래서 메시지를 남겨 놔다.

얼마 후 전화가 걸려왔다. “나, 지금 맴모스 스키장에 있어요. 산 꼭대기여서 전화가 안 터진 모양이네.” 소문이 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유 동문이 스키를 처음 탄 건 거의 45년 전이다. 이후 유타, 콜로라도, 아이다호, 캘리포니아 등 유명 스키장을 두루 섭렵했다. 그러다가 무대를 유럽으로까지 넓혔다.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지로 ‘원정 스키’를 간 것. 전세계 유명하다는 스키장은 대부분 다 가봤다.

“스키는 전 연령대가 고루 즐기는 겨울 스포츠입니다. 팔십이 넘어도 요령껏 타면 괜찮아요. 무릎다칠 걱정 없습니다.”

유 동문은 재미한인스키협회의 열성 회원이시다. 본업인 치과의사를 은퇴하고 나선 삶이 더욱 풍성해졌으며 맴모스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카톡으로 보내왔다. 붉은 색 스키 재킷에 헬멧을 착용하고 마스크를 쓴 모습이 프로나 다름없어 보였다.

시카고 약탈 피해 명정엽(29회) “동문들 배려로 이겨냈어요” 십시일반 성금 모아 전달, 한국서도 보내와



“선후배님들의 도움으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시카고 지역을 휩쓴 폭동과 약탈행위로 피해를 봤던 명정엽(29회) 동문이 회보 취재진에 고마움을 전해왔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관의 흑인 과잉진압으로 인해 촉발된 항의시위가 시카고

에까지 번지는 바람에 명 동문 부부는 애써 일군 사업체를 한순간에 잃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동문들이 발 벗고 나섰다. 특히 이 지역 김성봉(11회) 동문이 앞장 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다. 미주 동창회연합회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자체 기금에서 1000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미주 전 지역 동창회에 이 같은 소식을 공지한 것.

심지어 한국에까지 알려져 47회 동기생들이 명 동문 돕기 캠페인에 동참, 성금을 보내오기도 했다.

명 동문은 지난번 폭동 때 망가졌던 뷰티서플라이 가게는 문을 닫았다고 소식을 알려왔다. 건물주가 리모델링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고심 끝에 가게를 포기하겠다고 통보해줬다. 업소를 다시 셋업하려면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서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다. 마침 리스도 끝나 부담은 없었다고 한다.

명 동문은 “폭동 전, 가게 하나는 정리하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하느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은 심적으로도 안정돼 편안하게 지낸다고 말한 명 동문은 하나 남아 있는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문들의 배려와 도움 덕분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한 명 동문은 “더 열심히 일해 동문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피해를 본 시카고 지역 한인업소는 명 동문의 가게를 포함해 120여 곳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 귀국’ 신다정(62회) “경험 쌓고 돌아올래요” 한국서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회사 취업



신다정(62회) 동문이 모처럼 근황을 전해왔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악화돼 한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한 신 동문은 “다행히 취업이 금방돼 이젠 서울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근무지는 ‘스타트업’ 팸리스 회사. 반도체 설계 업무를 맡았다. 신 동문

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귀띔했다. 그래서인지 보안이 철저하다고 말했다. 출근할 때는 반드시 핸드폰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 퇴근할 때까지 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신 동문은 UC 샌디에고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재원이다. 남가주 동창회 일에도 열심히어서 회보 편집위원을 맡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몇년 전 이은숙 사대부고 교장 일행의 미국 방문 때도 캠퍼스와 도서관 등을 안내해 미국대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다.

신 동문은 “한국서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판교 아니면 화성에 있는데 우리 회사는 서울에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나홀로’ 미국생활과는 달리 이젠 본가가 있는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돼 일상이 즐겁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신 동문은 미국을 잊지 못한다. “(한국서) 경험을 쌓은 다음 반드시 퀄컴이나 인텔 같은 미국의 큰회사에 갈 거예요.”

그가 꿈은 1순위 대상은 단연 퀄컴. 본사가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샌디에고에 있어 꼭 ‘내 회사’ 같다는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면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되지만 백신 접종으로 격리가 풀리면 꼭 자신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미주 동문은 누구나 환영한다면서다.



▲ 왼쪽부터 이은숙 교장, 존 브리클레 교장(위트니 하이스쿨), 서미션 교사

이은숙 모교 교장이 2월 28일자로 퇴임했다. 이 교장은 지난 2018년 9월 역대 교장 가운데 처음으로 재임 중 미국을 공식 방문해 관심을 끌었다. LA에 이어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를 방문, 동문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했다. LA에서는 미국 최고의 명문고교 중 하나인 위트니 하이스쿨을 방문해 환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 교장은 지난해 동창회 후원금으로 1,000 달러를 보내와 동문들을 격려한 바 있다.

다음은 이 교장과와의 일문일답이다.

- 처음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한 교장 이신데 감회는?

취임 2년차에 미주총동창회가 결성되면서 모교 교장을 초청해서 5개 도시를 다니며 동문들을 뵈었다. 미주 동문들을 뵈고 나서 부고가 대단히 훌륭한 학교라는 느낌이 더욱 증폭되었다. ‘세상에! 이런

“동문 만나며 부고가 명문임을 재확인” 미주 동창회발전 후원금으로 1,000 달러 보내와

학교가 어디에 또 있을까!’하고.

- 미국 방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모교 교장이라고 어찌나 환대를 해 주시던지, 가는 곳마다 ‘모교가 뭐길래! 모교가 뭐길래 (이렇게 지극 정성으로 대접을 하시나?)’를 되뇌었다.

지금도 미주 동창회보 지면을 통해 보면 고맙고 그리워서 가슴이 따뜻해진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의 동문 덕에서 머물며 이야기를 나눈 것이 기억에 남는다.

- 모교재학생 미국 방문 프로젝트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관심이 큰 사업이다. 작년에 프로젝트의 정신을 심분 살리고자 1월부터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했다. 남가주선농장 학재단에서 2년, 뉴욕동창회에서 1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갔는데 팬데믹으로 중단돼 무척 안타깝다.

모교의 재학생들이 큰 꿈을 꾸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쉽지 않은 이 프로젝트에 편당하고 정성으로 운영해 주신 동문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 모교와 미주동창회 간의 유대관계 강화 방안은?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를 초청해 주시고 재학생 진로 프로젝트를 운영해서 모교 사랑을 극대화하였듯이, 모교교원 미국방문 프로젝트를 통해 모교에서 근무하는 자부심도 더 커졌다. 지속되면 좋겠다.

- 최초의 ‘공모’ 교장인데 자부심이 컸을 것 같다. 또 앞으로의 계획은?

예전에 영재를 키웠던 부고가 이제는 공교육을 선도하여 교육의 성장을 이끄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공모에 응했다. 부고가 법인화된 서울대학교 체제로 귀속한 것도 그 때문이다.

법인화한 부설학교의 숙원이었던 ‘서울대학교부설학교진흥원’이 작년 3월 설립되었다. 진흥원은 서울대 부속기관이자 네 부설학교를 통할하여 국립대학 부설학교로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기관이다.

제가 지난 1년 간 진흥원 부원장을 겸임하였다. 두 기관의 일을 하기에 힘이 부쳐서 교장을 새로 모시고 진흥원 일에만 전념하려고 한다. 4년의 1차 임기도 마치지 못하고 3년 반만에 교장직을 놓게 되어 송구하고 아쉽다.

토막상식 ... ‘방울뱀’이 미국의 국기?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저게 뭐지?’하고 놀랐을 것 같다.

지난 1월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싱턴 의사당을 난입할 때 일부 시위자들이 들고 있던 깃발이다. 노란색 바탕의 깃발 한가운데 방울뱀이 그려져 있다. 방울뱀 밑에 ‘Don’t Tread On Me’ 곧 ‘나를 밟지 마라’는 슬로건이

쓰여있다. 워낙 유명한 문구여서 첫자를 따 ‘DTOM(디톰)’이라고도 부른다.

‘방울뱀’을 들고 당당히 의사당으로 진격하는 시위대. 대체 이 깃발은 뭘까. 멀리 독립전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주인공은 크리스토퍼 개드스텐. 조지 워싱턴의 각별한 신임을 얻은 그는 혁혁한 전공을 세워 ‘건국의 아버지’ 반열에 오른다. 그가 바로 ‘개드스텐 플래그’를 만든 장본인이다. 누구건 미국의 독립에

걸림돌이 된다면 가차없이 독을 뽑아 응징하겠다는 다부진 결의를 담아냈다. 일부 강성 우익세력은 이 플래그가 미국의 진정한 국기라고 주장한다.

이 깃발은 2011년 네이비 실 특수부대가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을 때도 화제가 됐다. 새벽녘인데도 수만 인파가 뉴욕 거리로 뛰쳐나와 성조기와 함께 ‘개드스텐 플래그’를 흔들며 댔다. 테러리스트 주제에 감히 ‘방울뱀’을 건드려?

애틀랜타

코로나 팬데믹에도 6차례나 모임 가져 회장 임혜옥, 총무 황춘기... 하반기엔 트레일로 단합



▲ 애틀랜타 동창회는 뷰포드 댐 로드 트레일에서 산행을 갖는 등 야외 모임으로 단합을 다졌다.

애틀랜타 동창회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모두 6차례나 모임을 갖는 등 미주지역 동창회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단체로 평가받았다.

2월 2일 총회에서는 임혜옥(17회) 동문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날 모임에서 김순홍(13회) 전 회장이 고문으로 추대됐으며 노홍식(14회) 동문이 회계, 황춘기(22회) 동문이 총무로 각각

선출됐다.

하반기에는 팬데믹이 악화돼 되도록 실내 모임을 자제하고 대신 트레일 걷기로 단합을 다졌다. 장소는 뷰포드 댐 로드 트레일. 9월 12일 첫 모임에는 모두 8명이 참석했으며 임 회장이 만두와 수박, 노 고문이 스낵류를 준비했다.

10월 2일 같은 트레일에서 열린 2차 모임은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승원(16회) 동문이 스와니 770에서 점심을 지원했다. 같은 달 16일 열린 모임은 점심식사로 대체했다. 모두 14명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 임 회장과 주정숙(16회) 동문이 부담했다.

3차 트레일은 10월 30일. 10명이 참가했으며 산행이 끝난 후 일행은 노 고문이 준비해온 김밥과 스낵을 즐겼다. 11월 13일 열린 마지막 트레일에는 11명이 참가해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했다.

시 카 고

새 회장에 김영용(18회), 이사장 정조숙(14회) 부회장 우혜숙, 총무 최병선, 회계 박영선



▲ '마금눈' 주관으로 산수갑산에서 열린 신년하례식 모임

시카고 동창회가 김영용 동문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김영용(18회)
- 부회장 : 우혜숙(19회)
- 총 무 : 최병선(22회)
- 회 계 : 박영선(25회)
- 이사장 : 정조숙(14회)

한편 동문들은 매달 마지막 금요일 12시 정오(마금눈) 산수갑산 식당에서 점심모임을 갖는다. '마금눈' 회장은 권오화(8회) 동문.

송광호(17회) 동문의 '북녘땅' 월드코리안 뉴스에 연재



송광호(17회) 동문의 북한 방문기가 인터넷 매체에 시리즈로 실려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송 동문은 1989년 이래 북한을 8차례 방문, 취재해 느낀 점들을

정치적 색깔없이 정리했다.

'바뀌어 온 북한'에 초점을 맞춘 이 글은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조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고문인 송 동문은 캐나다 토론토 주재 언론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송광호 기자가 만난 북녘땅' 시리즈는 월드코리안뉴스(www.worldkorean.net)를 클릭, '송광호'를 검색하면 읽을 수 있다. 2월 18일 현재 21회분이 실려 있다.

남가주 21회 야유회 샌타 바버라 주립공원

2020년 마지막 모임을 11월 14일 샌타 바버라 인근의 Refugio 주립공원에서 가졌다. 아침 식사로 계와 소라를 썰 먹고, 점심은 해물찌개를 끓여 먹는 등 모처럼 가을 해변의 정취를 만끽했다.

거의 9개월 여름 움츠려 지냈으나 이날 만큼은 '코로나 블루'를 훌훌 털어버리고 고교시절 가을 소풍의 추억을 되살리는 등 한껏 수다를 떨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동문은 다음과 같다. 박해순, 김만철, 김형규, 이진영, 박영훈(6명).

강태완(31회) 동문 민주연합 상임대표

강태완(31회) 동문이 LA민주연합 상임대표로 임명됐다. 강 동문은 한국정부를 대신해 민간공공외교를 주도하고 있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교육포럼 담당 부회장을 맡아 연방의원들과의 교류도 적극 펼치고 있다.



▲ 2001년 결혼기념식 사진. 왼쪽부터 박문석, 윤정희, 줄리, 레너드, 이은주, 이병항

이병항(8회) · 윤정희(17회)

“시집살이 시켰다가는 무슨 원망 들을려고…”

선 · 후배 사이여서 거북하거나 불편하지 않아

우리 속담에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이 ‘사돈’이다. ‘거북하기는 사돈 네 안방이다’를 비롯해 ‘사돈 모시듯 한다’ ‘사돈집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사돈관계는 늘 조심스럽고 불편한 관계라고 해서 이런 속담이 나왔을 터.

이 같은 ‘터부’를 깬 이들이 바로 이병항(8회) 동문과 윤정희(17회) 동문이다. 두 분은 사돈을 맺은 사이다. 지난 2001년 이 동문의 아들 레너드와 윤 동문의 딸 줄리가 백년가약을 맺었다.

동문끼리 사돈이 돼 전혀 거북하거나 불편하지 않다. 이 동문 부부로서도 며느리가 후배의 딸이니 시집살이 시킬 수



▲ 줄리와 레너드 부부. 슬하에 아들만 둘을 두고 있다.

도 없는 노릇. 그랬다가는 무슨 원망을 들을려고….

사실, 남자 쪽을 중시하는 우리의 가족 관계에서 사돈관계는 결코 동등하지 않다. ‘딸네 사돈은 꽃방석에 앉히고, 며느리 사돈은 가시방석에 앉힌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 동문은 며느리 사돈이 후배이다 보니 윤 동문을 가시방석이 아니라 꽃방석에 앉힌다. 그만큼 예우가 극진하다. 후배가 시쳇말로 빠치면 아들이 고생(?)할까 봐서다.

두 동문은 어떻게 사돈이 됐을까. 이 동문의 아들 레너드는 뉴욕소재 아이비리그 대학인 컬럼비아에서 MBA과정을 밟고 있었다. 윤 동문의 딸 줄리 역시 아

이비리그 명문인 브라운 대학 출신. 글로벌 금융보험회사인 메릴린치에 스카웃돼 뉴욕 맨해튼에서 일하고 있을 때 레너드를 만났다.

둘은 소개팅이 아니라 교회에서 만났다. 교회의 ‘바이블 스터디’ 클래스에서 함께 성경공부를 하게 된 것.

윤 동문의 얘기는 이렇다. “원래 딸은 비혼주의자였어요. 절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지요.” 그랬던 줄리가 레너드를 만나고 나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옛 말에 ‘부부는 팔전 겁의 인연이 있어야 맺어진다’고 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부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맺어준다고 했다. 우주의 주인이 개입하는 인연은 몇천 겁이 아니라 무한대가 아닌가.

결혼식은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양가부모의 축복과 친구 및 지인들이 응원하는 가운데 치러졌다.

그때까지도 이 동문과 윤 동문은 서로 선후배 관계인줄 몰랐다고 한다. 줄리가 우연한 기회에 시아버지가 부고를 나왔다는 걸 알게 된 것. “아버님, 저희 엄마도 부고 나왔어요.” 며느리의 이 말에 이 동문 부부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동문끼리 부부의 연을 맺는 경우는 꽤 된다. 그러나 동문 사돈은 결코 흔치 않다. 회보 취재진도 동문 사돈을 ‘발굴’하기 위해 미 전국을 뒤졌으나 실패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LA에, 그것도 이병향 동문이 장본인인줄이야...

이 동문은 친동생 (고) 이병웅(10회) 동문과 함께 동창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텍사스에 살

고 있는 사촌여동생(이병희 · 10회)도 부고 졸업생이다.

‘부고 파워’로 따지면 윤 동문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친오빠(윤대현 · 15회), 친동생(윤덕현 · 23회)과 함께 ‘부고 트로이카’를 구축, 막강하다. 두 집안 모두 ‘부고 패밀리’여서 더욱 흥미를 끈다.

공동점은 또 있다. 두 동문은 ‘딸 둘에 아들 하나’ 자녀 수도 똑같다. 보통 인연이 아닌 셈이다.

이 동문의 며느리(줄리) 자랑부터 들어보자. “며느리가 되어줘서 얼마나 기쁘

이다.

베이비시터에 아이들을 맡기지 않고 손수 길렀다. 그러니 이 동문 부부로선 며느리가 고맙고, 대견할 수 밖에.

윤 동문의 사위 자랑도 이 동문의 며느리 사랑 못지 않다. “착하고, 효심이 강하고, 또 잘 생겼어요.” 최상급의 수석어는 죄다 동원한다. 그러면서 사위 같지 않고 꼭 아들같다며 칭찬이 늘어진다.

속담에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했지 않은가. 윤 동문은 사위가 장인 장모를 극진히 모신다며 흐뭇해 했다.

이 동문은 1964년 USC로 유학왔다. 학부과정부터 다시 공부해 석사학위를 따냈다. 부인이은주 여사가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졸업 후 LA 한인타운에서 CPA사무실을 오픈해 한인커뮤니티에서도 올드타이머로 존경받고 있다.

반면, 1973년 뉴저지에 정착한 윤 동문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했다. 부군(박문석)은 한마디로 ‘외조의 왕’. 비즈니스를 하며 아내를 돕는 한편 세 자녀를 모두 명문대학에 진학시켜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하다.

윤 동문은 2년 전 딸 부부의 권유로 남가주로 이사했다. 교회직분은 RPCA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총회장. 부군도 목사 안수를 받아 노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부는 지난 12월 결혼 50주년 금혼식을 치렀다.

두 동문은 마지막 만남지가 거의 반년이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두 사돈의 ‘우애’를 휘방놓고 있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그래서 윤 동문은 틈만 나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다. “절대 바깥 출입 마세요. 건강하시고요.” 선배에 대한 배려가 흠뻑 묻어난다.

며느리 · 사위는 성경공부반에서 만나 형제 자매도 부고 출신, 인연 남달라



▲ 두 사돈 동문이 한 자리에 모여 손자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고, 또 감사한지 몰라요.” 아들이 콜럼비아 재학시절 며느리가 뒷바라지에 힘을 쏟았다는 것. 레너드의 MBA 취득에 줄리의 공이 컸다며 고마워했다.

아들 부부는 아이 둘을 낳고는 뉴욕을 떠나 LA에 동지를 틀었다. 부모가 연로해 지자 걱정이 돼 ‘탈 맨해튼’을 감행한 것.

며느리는 ‘전업주부’가 돼 육아에 전념했다. 아이비리그 출신의 재원이지만 고소득이 보장된 취업 대신 가정을 택한 것

창단 8주년 맞은 선농합창단 “하반기 정기공연 꿈에 부풀어”



▲ 지난 2018년 9월 15일 LA한인타운의 미주평안교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 3회 정기공연

남가주 선농합창단이 지난 2월 5일 창단 8주년을 맞았다. 합창단은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난 3월 이후 거의 1년동안 대면모임을 갖지 못했다.

박영훈(21회) 단장은 창단 기념일을 맞는 소회를 합창단 카톡방에 띄웠다. 박 단장은 “팬데믹 시국이 곧 지나고

휘는 윤병남(7회) 동문이 맡았다. 단원 모집 알림이 나가자 예상을 깨고 20여 명이 자원하는 등 관심이 폭증했다. 안 동문의 리더십과 윤 동문의 열정으로 합창단은 빠른 시일내 틀을 잡았다. 창단 이후 수차례 정기발표공연, 양로원 위문공연과 선교센터 후원 음악회 및 모교 선농예술제에도 찬조 출연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합창단은 지난 2018년 9월 15일 정기공연과 2차례 요양병원 위문공연 이후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모든 단원들이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끝내는 올 하반기부터는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능하면 정기공연도 가질 꿈에 부풀어 있다.

한편 합창단은 지난해 10월 24일 중가주 샌타 바버라 33마일 북쪽에 위치한 Goviota 주립공원에서 단원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유회를 가졌다. 거의 반년만에 재회한 단원들은 서로 안부를 물으며 화합과 단합을 다졌다.

이날 임원진을 비롯한 단원들의 자원으로 식탁은 예년과 달리 풍성했다. 계와 소라 등 해산물과 함께 풍성한 음식이 테이블에 올라 단원들은 모처럼만의 나들이를 즐겼다.



▲ 지난해 10월 24일 샌타 바버라 비치에서 가진 단합대회 겸 야유회

우리 다시 모일 수 있는 날을 고대한다”며 “그때까지 모두 강건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썼다.

합창단은 지난 2013년 2월 5일 두달 동안의 준비작업을 거쳐 LA한인타운내 베들레헴 교회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초대 단장은 안방자(15회) 동문. 지

박영훈 단장 인사말

우리 남가주 선농합창단이 2월 5일로 창립 8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2013년 LA의 베들레헴 교회에서 윤병남 선배님의 지도로 첫 모임을 가졌지요.

그동안 매주 화요일 20여 명의 선후배들이 모여 한국과 해외의 가곡, 클래식 합창곡 등을 배우며 연습해 왔습니다.

수차례 남가주의 동문들을 초청하며 발표회도 가졌었고 올림피아 양로병원 등에서 여러번 위문공연도 했습니다.

작년 3월 말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10월 24일에는 Goviota 비치에 야유회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합창단 모임을 통하여 동문들의 친교와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를 하신 단원들과 초창기 합창단을 이끌어 오신 안방자 선배님, 채홍석 지휘자님, 조구순 반주자님과 전현직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팬데믹 시국이 곧 지나고 우리 모두 다시 모일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며 그때까지 모두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Happy Birthday, 우리 선농합창단!

선농합창단 파트별 구성

고 문 : 윤병남(7회) 안방자(15회)

지 휘 : 채홍석

반 주 : 조구순

소프라노(7) : 김옥주(18회), 박시영(15회), 박옥순, 부명자(15회), 안방자(15회), 이충호(32회), 최정혜

앨 토(2) : 나주옥(17회), 안상희

테 너(3) : 권상덕(16회), 박현호(15회), 안성주(16회)

베이스(5) : 김승모(23회), 박영훈(21회), 서기현(15회), 장철재(27회), 최영일(16회)

임원 : 박영훈(단장), 최영일(홍보), 부명자(총무)

‘국가대표시절의 추억이...’ 코로나가 깨워준 나의 수영본능

변인재 (10회)

내 생애 가장 잘 했던 것 중 하나를 꼽으라면 사대부고를 나왔다는 거다. 뜬금 없는 얘기로 들리겠지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무렵 은근 그런 생각이 들어 혼자 살짝 웃곤 했다.

나는 원래 평영을 했는데 지난해 손주녀석들이 내게 배영(백스트로크)을 추가해줬다. 반듯이 누워 양 팔로 번갈아 물을 밀치면서 두 발로 물 장구를 치는 종목이다. 평영과 배영을 두루 ‘구사’하며 수영을 하니 돋보일 수밖에. 동네 또래 여인들의 엄지척에 나도 환히 웃어보이며 손을 흔들어 준다. 수영을 마치면 사우나에서 한바탕 수다를 떨고.

어쩌면 코로나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수영본능을 깨웠는지도 모르겠다. 부고시절 나는 수영반이었다. 어렸을 적 달리기만 하면 늘 꼴찌였던 내가 수영반에 들어가다니. 그러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도를 받아 3학년 말쯤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를 달 수 있었다. 그야말로 학교의 자랑이자 가문의 영광이었다.

옛 사진을 보노라면 어머니의 모습이 오버랩돼 지금도 가슴이 미어진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내게 따뜻한 아침밥을 해 먹이시며 간식까지 만들어 싸 주셨다.

오라버니(변호수·7회)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코치를 소개해주고 경기기록(시간)을 담당하는 등 늘 내 수영인생의 곁을 지켰다. 덕분에 한국신기록도 낼 수 있었다.

첫 목표는 1958년 일본 도쿄의 아시안

게임. 그러나 전쟁으로 폐쇄화된 세계 최빈국이 여유가 있을리 없었다. 바로 이윽인데도 예산이 부족해 출전이 좌절됐다. 올림픽의 꿈도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러나 그때의 경험은 내겐 삶의 지침이 됐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의지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손주 자랑을 좀 해야겠다. ‘팔불출’이라고 눈살을 찌푸릴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 쏘옥 넣어도 아프지

않게 스타가 된 기분이다.

요즘은 학교교육이 ‘비대면’ 줌으로 대체돼 손주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다. 내겐 ‘축복’인 셈이다. 이런 호사를 또 언제 누려 볼 것인가.

우리는 가끔 미니축구를 즐긴다. 나와 딸, 그리고 여섯살짜리 손자 에즈라와 남편이 팀을 이뤄 게임을 한다. 어쩌다 우리가 공을 넣으면 손자가 분했는지 막 울어 재킨다. 딸이 에즈라에게 ‘스포츠맨

십’을 가르치는 것을 보며 세월의 빠름에 놀라기도 한다. 나도 예전엔 ‘사커맘’이었는데.

팬데믹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책을 많이 접하게 된다. 도서관이 문닫기 전 주섬주섬 책을 빌려왔다. ‘암에 지는 사람, 암에 이기는 사람,’ ‘파킨슨병 아내 곁에서’ 등. 김영교(11회) 후배님의 시집도 빼놓지 않고 읽었다. 얼마나 표현이 맛깔스럽고 와 닿았는지. 내 정신세계의 지평을 넓혀준 자양분이 됐다.

노후를 위해 다트머스 대학촌에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는데 잠깐 들른다는 것이 그만 발이 묶였다. 이곳의 풍광이 그렇게 좋을 수 없다. 작은 산이며, 호수, 개울하며. 집집마다 카누 하나 쏘는 기분으로 갖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20년은 가족의 소중한 함을 새삼 일깨워준 한 해였다. 코로나가 내게 귀한 선물을 줬다고 할까. 특히 동문들을 만나 인생을 함께 걸어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른다.

우리 부고 만세!.

손주들과 함께할 수 있어 내겐 ‘축복’ ‘김영교 시집’ 등 독서가 자양분 돼



▲ 집 부근엔 호수가 많아 종종 카누를 즐긴다.

않을 아이들이다.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다. ‘내 눈 속의 눈동자(the apple in my eyes)’라고. 손주 사랑에는 동과 서가 결코 다르지 않다.

우리 10회 가운데 하루 5000~1만 보를 걷는 친구들이 여럿 있다. 또 하나 자랑할 게 있다. 부고시절 익힌 국민체조를 동네 주민들에게 보급한 것이다. 농담이지만 ‘수영퀵’에서 줄지에 ‘체조선수’가

신기범 선생님, 마틴 대위, 맥타거트... 삶의 고비마다 도움의 손길, 못잊어 비행기표에 유학 생활비까지 쥐어준 미 외교관



▲ 해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선배님, 혹시 지금 보청기 끼고 저와 통화 하시나요?” 얼마 전 동창회 보 편집인이 ‘나의 삶, 나의 이야기’에 글을 써달

라고 전화하면서 한 말이다. “아닙니다. 청력, 시력 다 정상이에요.” 내 대답에 그가 놀라워했다. “정말, 축복받은 삶이시네요.”

나는 요즘도 한 주에 한 번은 프리웨이를 운전해 골프를 치러 간다. 장기열(7회) 동문을 비롯해 타운의 올드 타이머와 함께다.

정말 그렇다. 내가 미국에 올 수 있었던 그 자체가 ‘축복’이다.

전북 이리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를 하고 있을 무렵 얘기다. 서울서 전화가 걸려왔다. 허정 당시 서울시장의 보좌관으로 있던 고원창 선배로부터다. 다짜고짜 “오 중위, 시골 영어선생으로 썩을 거요?”라고 묻는 거였다. “서울에 가고 싶지만 길이...”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답을 내놨다. “미국 대사관에 일 자리를 마련했으니 빨리 오세요.”

이렇게 나는 미국과 인연을 맺게 됐다. 아서 맥타거트, 대사관에서 만난 그 외교관은 내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준 멘토이자 은인이시다. 스탠

퍼드 박사 출신인 그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다. 어느날 나를 집으로 초청해 손수 저녁을 차려주며 이야기를 나눴다.

“대사관 일에 만족하나요?” 뜬금없이 무슨 그런 질문을... “예, 대우도 만족스럽고, 토요일도 쉬고 한국과 미국 공휴일 다 쉬어 대만족입니다.” 내 대답에 맥타거트 박사는 정색을 하며 내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해줬다. “당신은 지금 미국인들이 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요.”

말은 소프트 했지만 어조는 단호했다. “의미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독립성과 창의성(independency and creativity)이

기표와 그들이 준 200 달러를 갖고 미국 유학의 길에 올랐다.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과의 인연은 부고재학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어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분은 신기범(훗날 서울사대학장 재직 중 테러로 사망) 선생님이셨다. 해방 후 미 군정시절이어서 영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터다.

‘실전 영어’를 배우기 위해 미 군정청의 장교클럽에서 ‘알바’를 했다. 학교가 끝나면 클럽으로 달려가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했다. 돈 버는 재미도 쏠쏠했고 또 영어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 피곤한 줄도 몰랐다.

이쯤해서 내가 어떻게 부고에 들어왔는지를 얘기해 보겠다. 내가 태어난 곳은 전북 익산의 황등이라는 농촌 마을이다. 그곳에서 국민(초등)학교를 마치고 경성사범

학교(사대부고의 전신)에 지원, 합격의 ‘영예’를 누렸다.

당시 정원은 120명이었는데 지원자가 2,450명이나 몰렸다. 합격자 중 조선학생은 고작 12명, 나머지는 모두 일본인들이었다. 합격통지를 받자 도지사까지 찾아와 “전라북도 전체의 영광”이라며 축하해줬다.

대학은 해군사관학교로 진로를 정했다. ‘우수 생도는 미국 유학 특전’이라는 문구에 강한 끌림이 왔다. 6·25가 터지기 한 달 전, 나는 40도가 넘는 고열로 쓰러졌다. 급성폐렴이라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게다가 약을 잘못 써 낙막염으로까지 병이 커졌다. 한 달 병가를 얻어 집에 왔

‘우수생도 미 유학’에 끌려 해사 입학 미 위생병이 항생제 주사, 내 목숨 살려

있어야 해요.” 그 분의 말이 내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사실, 미국유학의 꿈은 오래 전부터 꾸고 있었지만 현실이...”

내 말에 그 분은 유학시험에 합격하면 알려달라고 했다. 1961년 가을 나는 시험에 당당히 합격해 이 사실을 맥타거트에 알렸다. 이듬해 초 나는 그 분의 주선으로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입학허가서를 받아줄 수 있었다.

맥타거트는 내게 노스웨스트항공 탑승권과 함께 현금 100 달러를 손에 쥐여줬다. 동료 외교관 한 분이 내 소식을 들곤 100 달러를 보냈다. “공부 잘하고 돌아오라”는 격려의 말과 함께.

이렇게 나는 미국 외교관이 사준 비행

는데 공교롭게도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사관생도 신분이었기에 인민군에 잡히면 우리 가족 모두 처형감이었다. 해사 복귀는커녕 서둘러 온가족이 피란을 떠나야 했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바뀌어 나는 다시 고향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그때 운명처럼 또 다른 미국인을 만났으니... 웨스트포인트(육사) 출신의 마틴 대위다.

내가 졸업한 황등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병사들이 교실의 책상을 들고나와 불을 지피고 찢고 있었다. 내가 강하게 항의하자 마틴 대위는 찢찢매매 '후진국 젊은이'에게 거듭거듭 사과를 했다. 그러고는 놀랍게도 나에게 사단 통역관이 되어달라는 제의를 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승락했다. 지금도 내가 마틴에게 해 준 말이 기억난다. "I'm more than happy to join you."

나를 미국과 인연을 맺게 해 준 첫 미국인이 마틴 대위다. 미 25사단 통역관이 된 나는 뜻하지 않게 돈도 벌고, 영어도 늘고, 또 병도 고쳤다. 그때 앓고 있던 늑막염이 악화돼 나를 괴롭혔다. '스트렙토마이신 딱 한 방이면 끝나는데...' 미군 위생병이 나를 살렸다. 내게 12차레나 주사를 놔줬다. 거짓말 같이 병이 깨끗이 나았

다. 그때 그 기쁨이란... 그 위생병은 그러나 중공군의 대공세 때

최후를 맞았다. 비보를 듣고는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비록 그는 이 세상에서 떠났지만 나는 그가 베푼 사랑에 늘 고마움을 느낀다.

얼마후 나는 육군통역장고 시험에 합격해 중위로 임관, 8사단에 배치됐다. 이른바 '철의 삼각지대'라 불리는 중부전선의 철원, 금화 지역 방어를 담당한 부대다.

내가 처음 미국 땅을 밟은 것은 1953년 8월 초다. 조지아주 포트 베닝에서 고등군사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 귀국



▲ 지난 2017년 전미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연례총회가 열린 한국을 방문, 2회 동기생들을 호텔 레스토랑으로 초청해 모처럼 회포를 풀었다.

UCLA 박사과정... 타운에 CPA 사무실 전미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창설, '보람'

후 유학에 대한 열망은 갈수록 커졌는데 길이 보이지 않았다. 6년 만에 군복을 벗고는 이리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취업했다. 그러던 중 고원장 선배로부터 '미 대사관' 전화를 받은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석사를 끝낸 내가 LA에 터를 잡은 건 오로지 UCLA에서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서였다. 그때가 1966년이니 벌써 반세기가 훌쩍 넘었다.

1972년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도전, 합격해 사무실을 열었다. 한인 CPA는 열손가락을 꼽을 만큼 드물었다.

남가주 한인CPA협회에 이어 1998년에는 전미주공인회계사협회를 창설했다. 내가 초대회장을 맡아 틀을 잡았다.

3일 일정의 연례총회에는 전국의 한인 CPA 150명 가량이 모인다. 작년 총회는 시애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무산됐다. 아무래도 내년으로 연기해야 할 지 싶다.

협회 창립에는 이병항(8회) 동문의 도움이 컸다. 이 동문이 내 뒤를 이어 2대 회장으로 취임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일부에선 후배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이 동문은 자타가 인정하는 '공인' 실력자다.

돌이켜 보면 나는 많은 분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내가 한국을 떠날 때 결심 중 하나는 맥타거트를 비롯해 신세를 진 분들에게 이자까지 붙여 되갚아 드

리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분들은 이미 오래 전 세상을 떠났다. 요즘은 그 분들에게 속죄하는 심정으로 산다.

내 나이 올해 구순을 넘겼다. 삶의 고비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이끌었다고 감히 고백한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 앞서 얘기한 내게 건강을 축복해 주신 이도 그 분이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는 성경구절을 후배들에게 남기며 글을 마무리한다. 인간이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다.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진리의 말씀이다.

고향생각



팬데믹이 내게 준 뜻밖의 기회 ‘살림’ 할머니에서 화가로 ... 70여 점 작품

하 소 주 (18회 · 메릴랜드)



나는 미국에 와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상을 받았다 노벨상보다 더 좋은.

큰딸 아이 결혼식 전날 밤 이곳의 풍습 대로 열린 리허설 파티장에서다. 양가 부모 친척 친지들이 모인 앞에서 딸아이는 나에게 번쩍이는 트로피를 안겨 주었다. 그 트로피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Best Mom Award

Thank You

I Love You

vEp(Victoria Eun Pak)

교직생활 32년을 정리하고 미국에 온지 어언 18년째다. 일년에 한두번 방학 때밖에 만날 수 없어도 엄마의 한국생활을 존중하던 고마운 딸들. 하지만 어느날 엄마가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큰딸의 전화를 받았다. 난 단 한번의 망설임도 없이 미국 이민 길에 올랐다.

첫째와 셋째는 박사를, 둘째는 석사를 마치고 모두 어울리는 배우자를 만나 5명

를 다양했던 한국에서의 내 사회생활은 손주 돌보는 할머니 역할에 비해 그리 대단한 것들이 못 되었다.

처음으로 김치를 담아보고 뒷마당에 뽕구는 도토리 주워 묵도 만들어 보고... 그뿐이 아니다. 마켓에서 파는 팥감을 사서 곳감도 말려 보고 그 곳감으로 장아찌도 담아 보았다.

그러던 중 뜻밖에 길다면 긴 생활의 공백기가 왔다. 코로나 사태가 악화돼 사위와 딸들의 재택근무가 시작되었다.

세 딸들 집을 오가던 나에게 예고없이 닥친 ‘집콕’ 생활. 서툰 집안일이 만만치 않아 항상 바쁘고 우왕좌왕, 그래서 멈출 수 밖에 없었던 내 개인생활이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갑자기 내게 기회가 온 듯했다.

뒷방에 잠자고 있던 화구를 꺼내어 4호에서 100호까지의 크고 작은 그림을 70여점이나 그릴 수 있었다. 그 중 몇 점 동문들과 같이 느끼고 싶다. 많이 부족하지만 자랑스러워해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뒷방에서 잠자고 있던 화구 꺼내 4호에서 100호까지의 그림 그려...”

의 손주가 태어났다. 그러면서 난 한국에서의 내 생활을 잊어가며 서서히 할머니로 늙어갔다.

일요화가회원, 전국열린교육학회임원, 아마추어미술사, 새교실편집자문위원, 기능올림픽상업미술심사위원 등등. 나



▲ '듀나미스 듀오'의 터키 행진곡 연주.
거의 매주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클래식 팬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 듀나미스 듀오의 로고



▲ 전수진(왼쪽)과 송윤숙 듀오

듀나미스 듀오의 피아노 콘서트 ‘집콕’ 동문들에게 위로와 감동 선사 각나라 음악 소개, 세계 여행 느낌 ‘호평’

“마치 영화 ‘물랑루즈’를 보는 것 같은
황홀경에 빠졌어요.”

‘물랑루즈’의 배경음악은 오펜바흐의
‘천국과 지옥’에 나오는 댄스곡 ‘캉캉’.
지난해 10월 4일 ‘듀나미스 듀오(Duna-
mis Duo)’가 라이브 스트리밍 하우스 콘
서트의 첫 곡으로 ‘캉캉’을 연주해 많은
동문들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해줬다. 듀나
미스는 전수진과 송윤숙 두 피아니스트
의 듀오로 전수진씨는 고명숙(22회) 동
문의 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콕’ 중
인 동문들과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을 위
해 버추얼 하우스 콘서트로 진행됐다. 이
날 공연에는 두 피아니스트 모두 무대의
상을 입고 나와 실제 공연을 보는 것과 같
은 느낌을 줬다.

‘캉캉’에 이어 들려준 곡은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과 ‘소야곡.’ 두 곡 모두 우
리 귀에 익숙한 클래식 음악이다.

듀나미스는 두 피아니스트가 조지아 주

립대 박사과정 중 만나 2015년 결성했다.
이후 Bradshaw & Buono 국제피아노
경연대회 1등, US국제듀오피아노 경연
대회에서 3등을 수상했다. 창단 이듬해
엔 뉴욕 카네기 홀에서 데뷔무대를 가졌
다. 최근에는 Ischia 국제피아노경연대
회에서 1등없는 2등을 차지해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하우스 콘서트의 주제는 ‘여행.’ 팬
데믹으로 바깥출입이 제한을 받게 된 팬
들을 위해 각 나라의 유명 곡들을 연주,
세계를 여행하는 기분을 갖게 해줬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제 1악장. 베토벤 탄생 250
주년을 맞아 선곡했다. 마치 오케스트라
가 연주하는 것 처럼 장엄해 진한 감동
을 줬다.

피아노 듀오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역사가 오래된다. 대중교통수단이
없던 시절이어서 클래식 팬들이 대도시
에서나 열리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마음

대로 볼 수 없었던 것. 그래서 작곡가들
이 교향곡을 피아노 이중주로 편곡해 마
을의 살롱 등에서 연주, 오케스트라의 기
분을 느끼도록 한 것이다.

듀나미스는 이외도 생상스의 ‘동물 사
육제’, 유피미아 앨런의 ‘젓가락 행진곡’,
스티비 원더의 히트송 메들리 등 클래식
과 팝 음악을 넘나들며 여러 장르의 음악
을 선보였다.

한편 듀나미스는 거의 매주 하우스 콘
서트를 유튜브에 올려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바흐의 ‘양들은 한
가로이 풀을 뜯고(Sheep May Safely
Graze)’와 ‘예수, 인류의 기쁨(Jesus,
Joy of Men’s Desiring)’ 등을 올려 팬
들의 호평을 받았다.

유튜브(youtube.com)에 접속해 Du-
namis Duo를 클릭하면 지난 모든 연주
를 감상할 수 있다. 동문들의 응원은 구
독을 해주는 것. ‘Subscribe’를 누르면
된다.

‘블루핀 투나’ 으뜸, 100 파운드 넘어 옐로테일 잡아 대회 출품, 2등 ‘영예’

캘리포니아 김 영 태 (24회)

캘리포니아에선 1년 내내 다양한 종류의 낚시를 즐길 수 있어 가히 ‘낚시의 천국’이라 불릴만 하다.

보통 서피스 피싱(surface fishing)과 바텀 피싱(bottom fishing), 쉘로 워터(shallow water) 등으로 나뉜다.

‘서피스’는 글자 그대로 해수면 근처에서 노는 물고기를 잡는 낚시를 일컫는다. 추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바늘에 미끼를 달아서 잡는다.

미끼로는 살아있는 정어리나 멸치 등 이른바 라이브 베이트(live bait)를 쓴다. 늦봄부터 늦가을까지 수온이 비교적 높을 때 즐길 수 있다. 많이 잡히는 어종은 옐로테일, 투나, 도라도(마히마히), 화이트 시베스(민어), 보니토 등이다.

‘바텀’ 낚시는 추(10~16 온스)를 달아 100~300 피트 정도 내려서 잡는데 미끼는 주로 쭈꾸미를 사용한다. 수십 종류의 우럭이 잡힌다.

‘셸로’ 낚시는 수심 100 피트 내외에서 잡는 생선들이다. 광어는 물론이고 흑돔, 링카드(lingcod) 등이 많이 잡힌다.

일년 내내 다양한 낚시 스트레스 단번에 날려

여름 낚시의 백미는 블루핀 투나, 옐로핀 투나, 앨버코어, 스킵잭(가다랑어) 등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블루핀 투나가 단연 최고다.

보통 100 파운드 이상되는 투나를 카우(cow)라 부르는데 이 정도 무게의 투나를 끌어 올리려면 팔이 엄청 아프다. 그러나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겠다. 영어의 ‘no pain no gain’는 바로 카우 낚시를 일컫는 말일 터다.

옐로테일(하마찌) 또한 캘리포니아 낚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종이다. 지난 1993년 50 파운드가 넘는 옐로테일을 잡아 유명세를 탄 적도 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소재한 국제낚시연맹(Int’l Game Fish)에 출품, 뜻밖에 2등의 영예를 안은 것. 이를 기념해 박제해 놓았는데 우리집 가보 제 1호로 모셔놓고 있다.

처음 낚시에 입문한 건 1973년,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됐을 무렵이다. 벤투라에서 배를 타고 나가 흑돔(sheephead)을 잡은

것이 계기가 돼 피싱에 낚였다. 선원에게 이 생선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씨페~.” 처음엔 내게 욕(한국말)을 하는 줄 알았다. 정말이지 그렇게 들렸다. 영어가 짧았던 시절의 웃고픈 에피소드다.

뭐니뭐니 해도 바다낚시의 매력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단번에 날려 준다는 점이다. 직업상(CPA) 늘 숫자와 씨름해야 하는 내겐 필수 비타민 같은 존재다.

낚시를 하다보면 조황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공치는 날이라도 집에 오면 ‘또 언제 나갈 수 있나’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낚시다. 잡으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못 잡아도 그날 하루 바다에서 들여마신 음이온과 산소만 생각해도 본전이 아깝지 않다.

미국 낚시꾼들이 즐겨 인용하는 말로 이 글을 마무리 하겠다.

**‘아무리 최악의 낚시일지언정
최고로 일을 잘한 날보다 훨씬 낫다’**
The worst day fishing is better than
the best day working.

낚신했다 - 정기적으로 나가는 배를 이용할 수 있다. 차터 보트는 하루나 그 이상 배를 통째로 빌려 나가는데 20명 정도 승선하는 배는 성수기 경우 하루 3,000~4,000 달러. 팀은 배삯의 20% 주면 된다.



▲ 200 파운드가 넘는 블루핀 투나
(bluefin tuna)

물고기가 낚싯대에 걸려서 팽팽해질 때의 그 느낌, 입질이 와서 살살 낚싯줄이 튕겨질 때의 그 흥분. 낚시 동호인들이라면 결코 잊지 못할 스킬이다. 그래서 '낚시는 손맛'이라는 말이 나왔지 싶다. 채양식(22회) 동문과 김영태(24회) 동문의 '알래스카 vs 캘리포니아' 낚시 배틀을 소개한다. 어느쪽이 승자인지는 독자들의 판단으로 남겨둔다. <편집자>

‘대물’ 헬리벳 잡히면 총으로... 고래구경, 대자연의 경이 느껴

알래스카 채 양 식 (22회)



▲ ‘대물’ 헬리벳. 배위에서 ‘난동’을 부리면 부상당하기 십상이다.

내가 살고 있는 시애틀은 알래스카 어업의 전진 기지다. 북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어선 회사들과 가공 공장들의 본사가 모여있다. 수산물의 무역 및 도매업(Young Ocean 창업)에 종사하고 있어 낚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성수기는 6~9월이다. 코디악(Kodiak), 발데즈, 크레이그 등 여러 곳에서 스포츠 낚시 프로그램

이 규제한다. 1인당 하루 1~2마리를 잡을 수 있을 뿐이다. 고급 생선이어서 수퍼마켓에서 파운드 당 15~20 달러에 판매된다.

코디악에는 이외도 대구, 우럭 등도 풍부하고 문어, 옐로 아이, 홍어 등도 많이 잡힌다. 홍어는 현지인들이 먹지 않지만 우리는 날개만 잘라 가져온다.

튀니튀니해도 낚시의 손맛이 제일 좋은 것은 킹 새먼(10~60 파운드)이다. ‘연어의 왕’이란 이름답게 힘이 좋아서 밀고 당기는 맛이 으뜸이다. 킹 새먼이 트롤링 낚시에 걸리면 다른 낚싯대는 곧바로 걷어 올려야 한다. 그 정도로 요동을 치고 사방을 휘젓고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맛도 일품이다. 기름기가 많아 사시미, 구이, 지리, 어떤 요리를 하든 주부의 자존심을 살려준다.

헬리벳도 큰 것이 걸리면 30분은 족히 씨름해야 한다. 100파운드가 넘는 ‘대물’이 잡히면 선장이 총을 쏜 후 배 위로 끌어 올린다. 산채로 올리면 배 위에서 ‘난동’을 부려 자칫 부상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문어와 홍어는 마치 바위를 끌어올리는 것

킹새먼은 고급어종, 홍어도 잡혀 생선은 얼려야, 즉석 회는 위험

을 제공하는데 코디악을 ‘강추’한다. 가성비가 좋고 우리에게 익숙한 어종이 풍부해서다.

코디악은 앵커리지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거리(항공편)에 위치해 있다. 인구는 1만명 남짓. 대형 수퍼마켓, 식당, 호텔도 많고 특히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한 숙박도 가능하다.

먼저 항구 인근에서 청어낚시로 시작한다. 바늘이 줄줄이 달린 낚시를 바다로 내리면 청어가 몇마리씩 걸리는데 아주 재밌다. 4명이 10여 분만에 청어를 한 양동이 확보할 수 있다. 바다낚시에 필요한 미끼다. 이렇게 프레시한 미끼를 사용하니 조황이 좋을 수밖에 없겠다.

이후 한 시간 정도 먼 바다로 나가는데 타겟 어종은 킹 새먼(king salmon)과 헬리벳(halibut)이다. 흔히 헬리벳을 광어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광어는 플루크(fluke)라 부른다. 한국에는 없는 어종이어서 그냥 헬리벳이라 표기하는 것이 옳다.

두 어종은 알래스카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원이어서 철저

하게 잡이 날 정도다.

주의할 점은 낚시로 잡은 생선은 즉석 회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의외로 기생충이 많기 때문이다. FDA에 따르면 섭씨 영하 35도 이하에서 24시간 이상, 영하 20도(가정용 냉동고)에서는 7일 이상 얼린 후 회로 먹어야 안전하다.

알래스카 낚시의 또다른 묘미는 고래, 바다사자와 해후하는 것이다. 배 주변으로 집채만한 고래가 갑자기 떠오르며 ‘흥~’ 소리를 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라.

거대한 유선형 물체가 미끄러지듯 잠수하며 꼬리를 번쩍 치켜 올리는 모습은 정말이지 장관이고 자연의 경이를 새삼 느끼게 한다.

낚싯배 - 보통 2~3일이 기준이다. 게스트 4~6명이 승선 가능한 배(약 40피트)의 경우 하루 빌리는 값은 1,800~2,000 달러. 선장과 보조 1명이 승선하는데 팀은 별도다. 6개월 전쯤 예약하는 것이 좋다.

‘양로원’ 동창회, 이젠 익숙해져 남편이 더 적극적, 백신 맞으면 잔치할 터

송명숙 (31회, 토론토 동창회 총무)



▲ 송명숙 동문의 올겐 반주

사람들이 내 일자리가 네 군데라고 하면 놀란다. 그것도 성당이라고 하면 더 놀란다. ‘축복받은 삶이네요.’ 찬사가 곁들여진다. ‘축복’에 방점이 찍혀져 웬지 송구스럽기까지 하다. 정말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나 되돌아 보게 된다.

성당 두곳은 일요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성가대와 함께 하고, 나머지 두곳은 수요일 아침 7시와 토요일 오후 5시 특전 미사가 내 일터다. 언어도 각기 다르다. 주일 미사 한 대는 이탈리아어, 다른 하나는 영어로 진행된다. 부활절 등 큰 미사와 겹치지 않아 일정을 무난하게 소화하고 있다.

피아노가 전공이지만 성당에선 ‘전천후’다. 올겐을 연주하면서 성가대와 함께 노래도 부른다. 가끔은 솔로도 하며, 그 뿐만이 아니다. 몸짓과 눈짓으로 성가대원들을 컨트롤 하고 가끔 박자가 안 맞으면 한 손으로 지휘도 하고…. 온몸이 동원된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미사가 끝나면 파김치가 되다시피 한다. ‘기진맥진’은 바로 이런 경우를 일컫는 말일 터다.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약보를 읽지 못한다. ‘문맹’을 가르치느라 또 얼마나 애

를 먹는지.

내가 이민와서 이렇게 지내리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그래도 전공을 본업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총이라고 생각하며 지낸다.

내 세례명은 ‘세실리아’다. 그래서 이곳 캐나다인들은 내 이름을 절대 안잇는다. 세실리아가 ‘음악인들의 수호성인’이어서다. 3세기 초 로마시대의 순교자로 천사로부터 천국의 장미와 백합을 받았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성당 네 곳서 지휘·반주 ‘전천후’ 신자도 시니어, 선배들에 친근감



▲ 송 동문은 종종 선배들을 집으로 초청해 파티를 연다. 바베큐 등 주 메뉴는 남편 몫이다.

토론토에 정착한지도 20년이 훌쩍 넘는 다.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뀐 셈이니 결코 적지 않은 햇수를 살았다.

이곳서의 삶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다. 한국서 LG엔지니어링을 다녔던 남편은 비즈니스를 한다며 바쁘게 지내다 돈을 날려 먹고…. 과거 중동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역시 ‘송충이는 술있을 먹고 살아야한다’는 옛말이 하나도 그르지

않다.

삶이 이렇진대 동창회 모임은 언감생심, 생각조차 못했다. 처음 참석한 것은 2019년 여름으로 기억한다. 이양배 회장님은 “송 후배가 아주 적극적이고 왜 진작 알지 못했나 아쉽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과찬이시다. 나는 원래 낮가리는 성격이어서 남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한다.

처음 참석한 동창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양로원’ 느낌이었다고 할까. 연로하신 선배님들이 다수여서 순간 ‘힘들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나이드신 분들하고는 잘 어울리며 또 익숙한 편이다. 교회 성가대는 물론 신자들도 상당수가 시니어 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창회 모임에선 선배님들이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 내가 더 사랑하고 보살펴 드려야 할 분들이다. 사실 나 보다 남편이 동창회에 더 열심이다. 집에서 모임을 가지면 바베큐 등 메인 메뉴 준비는 남편 몫이다.

아이 셋 가운데 첫째와 막내는 캐나다에서, 둘째는 미국에 살고 있다. 내 DNA를 물려받아서인지 음악을 전공한 둘째는 캔사스시티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리니스트다.

동창회에는 내 동기인 31회 동기부부와 38회 후배도 있어 외롭지 않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어서 만남이 여의치 않다. 백신 맞고 상황이 진정되면 선배님들을 집으로 초대해 ‘잔치’를 벌일 생각이다. 그때까지 다들 무탈하시기를….

LA 16회 동기생이 무려 40여 명 각 기수 중 최다... 사연을 알아 보니



▲ 지난 2월 9일 마운틴 골프클럽에서 열린 골프 모임.
왼쪽부터 민건홍, 강병찬, 이창준, 최광훈, 안성주, 성한석. 이석규
동문은 촬영 관계로 사진에서 빠졌다.

LA를 포함한 남가주 일원에서 동기생이 가장 많은 기수는 단연 16회다. 40여 명이나 된다. 부부동반하면 거의 100명을 헤아려 송년모임을 따로 가져도 될 법하다.

왜 16회에 이처럼 많은 동기생들이 몰려 있을까. 1964년 모두 780명이 졸업장을 받아 부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예년에 비해 무려 350명이 더 많았던 것.

16회는 캠퍼스가 둘이다. 하나는 을지로 5가, 또 하나는 왕십리 쪽에 있다. 사연은 이랬다. 1960년대 초 까지만 해도 왕십리엔 서울사범학교 병설고등학교(약칭 병고)가 있었다. 3년제 병고를 졸업하면 국민(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주어져 인재들이 몰렸다. 취업이 어려웠던 시절이어서 병고는 부고 입학만큼이나 어려웠다.

그런데 졸업을 2년 앞두고 갑자기 두 학교가 통합됐다. 정부가 초등학교원의 질적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병고를 폐지하고 대신 교육대학(2년제)을 신설한

투명질 게 뻗한 노릇. 취업전선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부고 측도 '우리는 특차로

서울사범학교 병설 고교와 통합 졸업생이 예년 비해 350명 많아

들어왔는데...'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통합에 시큰둥했다

캠퍼스가 분리돼 있어 재학시절 서로 교류는 없었다. 그러나 졸업 후 양 측 졸업생들은 통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됐다. 졸업생 숫자가 많다보니 대학에서나 사회에서나 만남의 빈도가 잦아질 수밖에.

한국의 총동창회가 발행한 회원명부(2002년도 판)에 따르면 16회 병고 출신의 사회적 활약이 두드러졌다. 통합이 안 됐더라면 아까운 남녀 인재들이 동창회 명단에서 제외됐을 뻔 한 것.

LA에서 만큼은 병고와 부고가 스스로

다는 내용의 교육법 개정안을 공포한 것.

병고 학생들 입장에선 선뜻 수긍하기 어려웠다. 당초 초등학교 교원을 지망해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인문고교로 편입시키면 진로가 불

없이 지낸다. '우리는 하나'라는 동기의식이 매우 강하다.

한 예로 지난해 9월 강철은 동문의 부음소식이 전해지자 LA의 16회가 조의를 표하는 등 그의 갑작스런 타계를 아쉬워했다. 워싱턴 한인회장을 지낸 강 동문은 병고 출신이다.

강 동문 유족은 최근 지인들과 함께 18만 달러를 출연, 장학금(the Kang Chu-leun Leadership Award)을 만들어 한인커뮤니티에 기증했다. 앞으로 20년 간 매년 5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동기생들은 강 동문을 '자랑스런 16회'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 지난해 9월 타계한 강철은 동문.
워싱턴 한인회장을 지냈다.

한 동기생은 "미국에선 (병고, 부고 서로) 편견없이 잘 어울린다"며 "앞으로 송년회를 비롯한 총동창회 모임에도 참석을 적극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16회 단톡방에는 병고 출신도 빠짐없이 가입돼 있다. 지난 2월 9일 마운틴 골프클럽에서 열린 토너먼트에도 두 캠퍼스 출신이 모여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 크루즈를 떠나기 앞서 참가자들이 리걸 프린세스호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17층 규모인 이 배는 10만톤이 넘는 초호화 유람선이다.

‘어게인 2019!’ 크루즈 1주년 맞아 그 때의 감동이...

“벌써 1주년이 됐네요. 모두들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워요.”

지난해 10월 26일. 단독방에 누군가가 이 같은 글을 올리자 삼시간에 태평양 건너까지 전파됐다. 공감한다는 글이 주를 이뤘다.

지난 2019년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열렸던 미 동부와 캐나다 크루즈 여행에 관한 내용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갈수록 악화돼 바깥출입이 제한을 받게 되자 크루즈에 관한 추억과 관심이 갑자기 폭증한 것이다.

모두 161명이 참가한 크루즈는 미주 동창회 연합회와 한국의 총동창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였다. 미국 전역에 흩어져

권일중 후배님,
그동안도 건강하시고 매일 재미있게 지내
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총회 사회는 너무도 훌륭하
였습니다. 사모님과 종도 인상이었
고요 기자 배우 놀 웃을 화려하게 단정히
입으시고

저의 부부에게
“종족 보존에 공헌을 하신...”. 지금도
너무 웃어서 ..

창으로 유머도 많으시고 유식하시고 유익
한 사회자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사회자 그중에 제
일 다음 회의에 꼭 뵙겠습니다

‘종족 보존의...’ 우스개 회자
모두 161명 참가, 22회 ‘최다’

살고 있는 동문들과 한국은 물론 멀리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지에서도 참여해 성황리에 마쳤다.

미주 연합회 총회 겸 해서 열린 크루즈는 뉴욕에서 캐나다 동북부를 왕복 여행하며 동문간의 우정과 선후배의 사랑을 나누었다. 크루즈는 17층 짜리 리걸 프린세스호. 10만톤이 넘는 초호화 유람선이다.

크루즈 1주년을 맞아 가장 많이 거론된 이는 단연 권일준(20회, 뉴욕) 동문. 변인재(10회, 뉴햄프셔) 동문은 “권일중 후배님, 그동안도 건강하시고, 매일 재미있게 지내시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고는 “캐나다에서의 (연합회) 총회 사회는 너무도 훌륭했다”며 찬사를

보냈다.

“〈권 동문과〉 사모님의 춤도 인상적이 었다”고 쓴 변 동문은 “저희 부부에게 ‘종 족보존에 공헌을 하시고...’ 대목은 결코 잊지 못하겠다”고 했다. 참 으로 유머도 많고, 유식하 고... 자신이 지금까지 본 사회자들 중에서 으뜸이라 고 권 동문을 치켜세웠다.

부부가 함께 크루즈에 참여했다는 고혜자(14회, 노스 캐롤라이나) 동문도 “크루즈 모임에서 사회를 제일 잘 보신 분”으로 권 동문을 기억했다.

손난주(10회, 사우스 캐롤라이나) 동문은 크루즈 1주년을 맞아 그날이 그림 다며 글을 올렸다. 자신을 미주 10회 회장으로 소개 한 손 동문은 앞으로 동창 회 행사에 꼭 동참하겠다고 다부진 결의를 보였다.

크루즈 참가자 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10회는 세 분 모두 부부동반으로 참석, ‘임꼬부부’로 유명세(?)를 떨쳤다.

동기 카톡방에도 2019 크루즈는 화제가 됐다. 모두 7명이 크루즈에 참가한 18회는 졸업 후 크루즈에서 처음 만난 친구도 있었다. 이들은 배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다 며 1년 전을 되돌아봤다.

크루즈 참가자가 가장 많 았던 기수는 22회. 박흥주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비롯

해 모두 30명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21회 의 28명. 23회도 (고) 손명희 워싱턴 DC 회장을 포함해 16명이나 됐다.

이어 11회 9명, 14회 8명, 18회 7명, 10 회 6명, 16회와 17회 각각 4명 등 순이었 다. 최고참 참가자는 8회의 장효열, 권오 화 동문.

차기후보지 ‘스모키 마운틴’은 부적합 숙박시설 등 부족, 연말 즈 결정될 듯



▲ 댄스파티도 크루즈의 하이라이트.
5박 6일 일정의 크루즈에는 모두 161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 캐나다 관광에 나선 동문들. 크루즈는 지난 2019년 10월 26일 부터 31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가야금의 명인’ 문재숙(23회) 동 문도 참가해 크루즈를 빛냈다. 문 동문은 작은 딸이 ‘미스 코리아’ 출신 여배우 이

하늬다. 큰 딸 이슬기 양도 가야금에 입 문, 문 동문의 뒤를 잇고 있다. 문 동문의 오빠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당초 2020년 총회 겸 여행은 테네시주 의 스모키 마운틴 내셔널 파크로 예정돼 있었다. 그 러나 팬데믹으로 상황이 어렵게 돼 결국 연기하게 된 것.

행사를 주관하게 될 애 틀랜타 동창회는 ‘스모키’ 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 을 내놔다. 임혜옥(17회) 애틀랜타 회장은 미국 국 내에서 100여 명, 한국 등 해외에서 50여 명 등 모두 150명 이상의 참가가 예상 되는데 국립공원엔 이처럼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숙박 시설도, 또 식당도 없어 추 진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 다. 대안으로 멕시코의 칸 쿤이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 같은 얘기를 전해들은 신현구(22회, 애리조나) 동문은 군 복무시절 부대 의 취사를 총괄한 경험이 있다며 일정이 잡히면 식 사문제 만큼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장담.

일부에선 올해도 단체 여행은 어려울 것으로 내 다봤다. 코로나 접종이 빨 라야 금년 말 즈에서나 끝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다.

일부 동문들은 “코로나가 우리의 행복, 미래를 빼앗 아 갔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차 기 총회 겸 관광은 연말 즈 가서야 가닥 이 잡힐 것 같다.

안동현(15회) 동문의 역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안동현 선배의 저서를 LA의 한 동문으로부터 전해 받았다. 나중에

읽으려고 책상 모퉁이에 놓았다가 얼마 전에야 비로서 펼쳐봤다. 무엇보다 저자의 제자들이 보내온 편지가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며 저는 자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진솔한 글이 이 책을 빨리 읽어야 하겠다는 충동과 조바심을 주기에 충분했다.

책은 저자가 평생을 살면서 터득한 삶의 진실을 간증처럼 적어놨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겪는 불편과 고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시간이 갈수

록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 빗더미 위에서 무리한 삶을 살아온 개인과 기업은 결코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어 저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준다. “생활 규모를 과감하게 줄여 자신들의 분수 안에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는 잘못된 삶을 바로 잡는 축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7쪽)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한 의도는 후기에 나온다. “나는 내 인생의 반반씩을 한국과 미국에서 살았다. ~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몰라 겪었던 시행착오와 실패한 삶의 경험을 통해 인간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에 정해 놓은 인생의 설계도, 곧 인생의 진리대로 살아야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

을 수 있었다.”

저자는 특히 사탄이 계획하는 일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했다. 나와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자극하며 그 뒤에 숨어 분노와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관계를 전복시키는 계략 - 우리가 사탄의 그 계략에 속지 말아야 하며 대신 우리들의 선한 부분이 상대방에 있는 착한 것들과 교류해야 하는 이유도 이 책에서 배웠다.

국제선물시장에서 오래 활약하신 분이 이런 인류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특히 요즘같은 팬데믹 시기에 꼭 필요한 저서를 내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저자 약력 : 서울대 상대 경제학과 (1967)/ 호서대학교 교수(2006-2015)/ Sakura Delsher, Commerz Bank 선물회사 아시아 담당 책임자(1995-2004) 최영일(16회)



‘계관시인’ 도널드 홀의 유작 ‘여든 이후에 쓴 에세이’

“세월은 십년씩 흘러갔다. 서른살은 겁나는 나이였고 마흔살이 되던 날은 술을 많이 마신 탓에 눈치채지도 못한 채 지나갔다. 오십대가 최고였는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육십대가 되자 오십대의 행복이 연장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저런 암에 걸렸고 아내가 죽었다. 그 후의 여러 해를 돌아보면 마치 다른 우주로 여행을 온 것 같다.”

미국의 ‘계관시인’ 도널드 홀(1928~2018)이 삶의 끝자락에서 펴낸 ‘여든 이후에 쓴 에세이(Essays After Eighty)’에서

밝힌 삶의 풍경이다. 평생 50여 권의 책을 출간한 홀은 지난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예술훈장’을 받았다. 미국의 문화발전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다.

이 책의 에세이들은 대부분 그가 뉴햄프셔의 고향집 안락의자에 앉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창밖 풍경과 숲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자신의 긴 생애 중 어느 지점들을 회고하는 형식이다.

여든의 시인은 늙음을 포장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늙음이 대체로 불편하고 쓸쓸한 것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는다. 그 불편함을 토로하기 보다는 늙어서 좋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한다. “아흔이 돼서 좋은 점 중 하나는 한 번 읽은 탐정소설을 보름 후 다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등장인물 중 누가 범인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특유의 익살을 선보인다.

그래도 저자는 불편하고 쓸쓸하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주문한다. 60대 중반이후 홀은 늘 죽음과 맞대면하며 살았다.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나 이미 간으로 전이된 상태. 5년 생존가능성이 고작 20%라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는다. 아내 제인마저 백혈병으로 숨져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게 된다.

이 책은 여든이 되어서도 매일매일 글을 썼던 저자의 에세이 14편을 모은 것이다. 죽음과 나이듦에 대해 지혜롭고 위트 있는 이야기를 전해준다. 있는 그대로 현재를 응시하고 맞이하는 자세, ‘지금’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넌지시 일러준다. 노년이란 연속적인 상실의 통과례라고, 그래도 마흔 일곱살에 죽는 것보다 낫다고, 탄식하고 우울해봤자 좋아지는 것은 없다면서다.

노원일(1회) 동문 타계에 애도의 물결

지난해 8월 소천, 코로나 사태로 뒤늦게 알려져

조부는 독립운동가 ... 일제의 투옥, 고문으로 숨져

지난해 8월 타계한 노원일(1회, LA) 선배의 소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동문들 사이에 애도의 물결이 넘치고 있다.

노 동문은 남가주 총동창회가 1~6회 선배들에 기프트카드 발송에 앞서 주소를 확인하던 중 타계한 사실이 밝혀졌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접촉이 없다보니 동창회 측에서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유가족에 따르면 노 동문은 검진차 병원을 찾았는데 의료진이 건강상 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귀가조치를 내렸다는 것. 병원에서 잠시 가족과 대화를 나누던 중 “미안하다”는 말을 세 번 반복하고는 갑자기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동문의 둘째 딸도 지난 12월 세상을 떠나 충격을 더했다.

노 동문은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나 1948년 월남, 사대부고 1기생으로 졸업했다. 6.25가 터지자 자원입대해 전투병



▲ 노원일(1회, 오른쪽) 동문과 노원철(7회) 동문

으로 복무, 온갖 죽을 고비를 넘겼다. 서울의 모교에 노 동문의 한국전쟁 참전명패가 전시돼 있다.

1979년 미국에 이민와서는 줄곧 교회 성가대를 지휘하는 등 올곧은 신앙생활을 했다.

친동생 노원철 목사 역시 사대부고 출신으로 7회 졸업생이다. 미국 장로교회 목사로 오래 시무하고 은퇴, 이후엔 병원 원목(차 병원)으로 봉사했다. 지금도 새소망장로교회에서 협동목사 직분을 맡아

전도에 힘쓰고 있다.

한편 노 동문의 조부는 일찌기 미국선교사의 영향으로 기독교로 개종, 고향에 교회를 세우고 중학교와 여학교, 고아원을 설립하는 등 선천에 근대문물을 도입하는 데 진력했다.

당시 선천은 조부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주민들이 기독교 신자가 돼 주일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노 동문의 조부는 독립유공자 명단에도 올라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돼 온갖 고문을 당한 끝에 숨진 것. 기록에 따르면 조부는 ‘선천사건’ 또는 ‘105인 사건’으로 불리는 독립운동에 깊이 관여했다.

독립운동사에는 1911년 조선 총독부가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당시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암살미수사건을 조작, 105인의 독립운동가를 체포 고문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일제는 당시 600여 명의 조선인을 체포했는데 노 동문의 조부를 비롯한 105인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유태종 목사
(2회·시카고·1-1-2021)



민병권
(3회·오하이오·2-6-2021)



오호한
(8회·LA·12-26-2020)



이화섭
(8회·시카고·12-19-2020)
시카고한인여성회 회장, 한글학교 교장 등을 지내며 이민여성들의 조기정착과 2세 교육에 진력.



박임균
(12회·LA·12-11-2020)



공순희
(17회·LA·6-21-2020)
동기회 대표 등을 지내며 남가주동창회 발전에 기여. 필즈 피아노에서 장기 근무.



손명희
(23회·워싱턴 D.C.·8-1-2020)
워싱턴 D.C. 서울사대부고 동창회 회장.

야구는 왜 부활절에 개막할까 '희생' 강조되는 스포츠... 죽음의 신비 묵상

메이저리그 1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로 뽑힌 25명은 야구의 문외한이라도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인물들이다. 베이브 루스, 조 디마지오, 테드 윌리엄스, 행크 아론, 요기 베라, 사이 영, 미키 맨틀, 놀란 라이언, 마크 맥과이어, 그레그 매덕스...

이 중 24위에 랭크된 선수가 에디 콜린스(1887~1951)다. 프로야구를 흔히 꿰뚫고 있는 팬들도 이 이름엔 고개를 가우뚱하게 된다. 그가 누구일까.

콜린스는 팀의 승리를 위해 가장 많은 '희생'을 한 인물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절묘하게 '번트'를 때려 팀을 구원해냈다. 현역시절 그는 512개의 '희생 번트'를 성공시켜 이 부문 메이저리그 기록으로 남아 있다. 2위보다 무려 120개가 더 많다.

콜린스는 당시엔 드물게 대학 졸업자, 그것도 아이비리그(콜럼비아) 출신이다. 자부심이 강하다고 해서 언론은 그에게 '카키(Cocky)'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그러나 동료들 사이에선 '그리스도'로 통했다.

자신은 번트를 때리고 죽음을 맞지만 1루에 있는 동료는 그 순간 2루로 내달려 득점기회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패배의 수렁에 빠져있는 팀을 승리로 부활시킨 콜린스. 그래서 '그리스도'란 우스갯소리로 불렸던 모양이다.

알고 보면 그는 강타자다. 3루타를 187개나 때려 당시 아메리칸 리그에서 이 부문 3위에 오를 만큼 배팅에 능했다. 그러

니 기회가 오면 한방의 거포본능이 발동했을 터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철저히 죽였다. 특히 주자가 3루에 있을 때 그의 번트는 한편의 예술이었다고 한다. 자칫 병살타가 돼 게임이 끝날 법도 했으나 공은 투수와 포수 사이의 사각지대에 정확하게 떨어졌다. 이틈에 3루 주자는 홈인, 역전을 이끌어낸 게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의 번트는 소속팀 필라델피아 어슬레틱스를



▲ LA 다저 스타디움

3차례나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다.

야구를 흔히 기독교 신앙에 빗대 얘기하는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콜린스의 번트에서 비롯됐다.

“야구는 교회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만 대부분 이해하지 못한다.” 뉴욕 메츠의 전설적인 감독 웨슬리 웨스트럼이 남긴 명언이다. 독실한 신자들도 때로는 예수의 구원과 부활의 신비에 의문을 갖는 것처럼 야구 팬들도 번트가 왜 중

요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구기종목을 통틀어 '희생'이 강조되는 스포츠는 야구가 유일하다. 희생(sacrifice)은 원래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란 뜻이어서 교회에선 가장 위대한 덕목으로 꼽는다. 번트가 야구의 규정으로 채택된 것도 100년 전 미국인들의 신앙심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도 프로야구만큼은 시즌이 계속될 수 있었던 데는 콜

린스의 공이 작지 않았다. 야구의 희생정신을 내세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설득한 것이 주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병사들의 값진 희생으로 나치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을 물리칠 수 있었다.

메이저리그가 기독교의 최대잔치인 부활절에 맞춰 대장정의 나래를 편다.개막전은 4월 1일, '10월'의 플레이오프와 '11월'의 월드시리즈 이른바 '옥토벰버(Octovember)'를 향해 30개 팀이 백구의 향연을 벌인다.

무관중으로 치른 지난 시즌과는 달리 올해는 팬들의 입

장이 허용된다. 방역수칙이 적용되겠지만 코로나 백신이 급속히 보급됨에 따라 얼마안가 관중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울 것으로 기대된다.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애를 태우는 자를 흠으로 불러들이는 희생 번트. 어쩌면 선수들의 번트를 지켜보며 부활의 신비를 묵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글 | 박용필(18회)

동창회 연회비 납부 캠페인

“작은 정성이 모여 큰 희망을 만듭니다”

동문님들이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동창회의 각종 행사,
모교 지원 및 동창회보 발행경비 등으로 소중하게 쓰입니다.
작은 정성이 모이면 큰 희망이 돼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래 첨부한 회비 납부서에 내용을 기입하신 다음 점선 부분을 잘라 봉투에 넣어
체크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사대부중·고 동창회 연회비 및 후원금 납부

Make Check Payable to: SNU High School Alumni

이 름	() 회)
주 소	
전 화	
이메일	

() \$30

() \$100

() \$200

() \$300

기타금액: \$ _____

Send Checks to SNU High School Alumni Association | 7372 Brookwood Ln., Highland, CA 92346

미주총동창 연합회

회 장 김민주(21회 · 213-268-2301)
부회장 각 지역 동창회장
감 사 권일준(20회)
재 무 김영태(24회) · 정경금(31회)
사무국장 구송영(47회 · 423-991-9610)



남가주 기수 대표

지역동창회 회장

남가주 박흥주(22회 · 909-856-6083)
S.F. 홍성호(36회 · 408-759-0581)
오레곤 최완섭(22회 · 201-983-2858)
시애틀 한영한(16회 · 818-854-4118)
시카고 김영용(18회 · 847-812-1500)
보스턴 최한길(22회 · 617-733-3709)
필라델피아 이종태(23회 · 267-266-2881)
워싱턴 D.C. 강준식(25회 · 336-605-0086)
뉴욕/뉴저지 오시국(22회 · 646-403-6028)
애틀랜타 임혜옥(17회 · 678-262-7857)
댈러스 김 웅(22회 · 214-284-7572)
미시건 신광용(22회 · 248-974-5426)
토론토 이양배(22회 · 647-554-3428)

1회 류문기(818-875-1571)	22회 심종택(626-643-2307)
2회 오영균(213-364-6641)	23회 이매자(213-591-0311)
3회 윤응중(626-652-1953)	24회 김영태(213-700-5591)
4회 이정화(310-386-4046)	25회 차학송(310-293-2663)
5회 송준화(951-226-4745)	26회 백남수(213-392-7633)
6회 윤정현(310-619-8257)	27회 김흥숙(310-387-7422)
7회 윤병남(714-396-3941)	28회 김 건(213-453-3764)
8회 김병천(818-577-6565)	29회 신용철(213-605-1636)
9회 공상원(714-726-3343)	30회 정재황(858-397-4587)
10회 호성진(310-415-7260)	31회 강태완(213-550-7981)
11회 전건식(213-507-8802)	34회 조남중(213-210-8435)
12회 김명신(818-389-1735)	35회 이종신(310-438-0358)
13회 김경자(213-389-3133)	38회 차제명(213-434-4056)
14회 권상덕(310-779-3830)	39회 정현진(213-820-1330)
15회 서기현(213-604-1669)	40회 노정식(213-216-6429)
16회 최영일(213-604-5978)	42회 김상진(818-448-5335)
17회 계인려(818-648-8273)	44회 윤성룡(213-434-2119)
18회 박응필(213-247-7187)	45회 조재경(213-453-9638)
19회 유금혜(310-827-0231)	48회 윤대규(213-393-9690)
20회 권영렬(213-272-6262)	62회 권수지(917-592-6273)
21회 박영훈(818-808-3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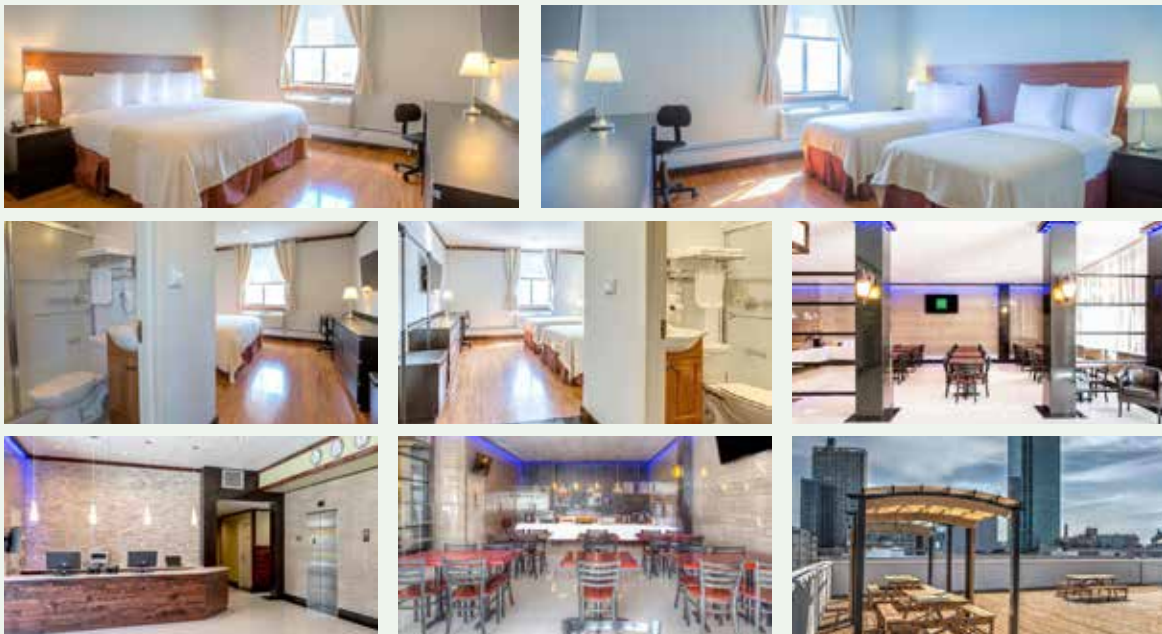
남가주 동창회

회 장 박흥주(22회 · 909-856-6083)
총 무 조남중(34회 · 213-210-8435)
선농합창단 단 장 박영훈(21회 · 818-808-3931)
선농장학위원회 위원장 심재호(27회 · 818-606-8859)
선기회 회 장 이석규(16회 · 310-650-8880)
청구회 회 장 강병찬(16회 · 714-833-9622)
다원회 회 장 조남중(34회 · 213-210-8435)



LIC HOTEL

We emphasize cleanliness and comfort above all else and strive to provide our guests with the most convenient experience during their visit to the wondrous city of New York.



44-04 21st Street, Long Island City, New York 11101
718-406-9788

www.lichotelny.com



김승호(23회) · 김지화